한국 속의 해외문화의 섬, 주한 외국문화원

이 선 실 | 르포라이터

프랑스문화원
(http://ambassade.france.or.kr)



해외문화원의 대명사격이었던 프랑스문화원. 7,80년대 영화인들의 산실로 불리우며 한·불 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프랑스문화원이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1886년 한·불 수호통상조약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한국과 프랑스는 1968년 다시 한·불 문화협정을 성사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에 프랑스문화원을 설립하였다. 당시 프랑스문화원의 정식 명칭은 *Centre Culturel Francais*로, 양국간의 '문화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프랑스문화와 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1971년에는 종로구 사간동 70번지로 장소를 옮겼고, 문화원 내에 도서관 및 미디어테크, 전시실, 영화관,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일반인들을 맞았다. 경복궁 앞에 위치한 프랑스문화원은 이후 30년 동안 서울의 명소로 각광받아왔다.

그리고 올해 초, 프랑스문화원은 서울 봉래동 우리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제2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난 해 영화관과 전시관이 있던 문화원 건물의 폐쇄와 함께 해체되고, 대사관 내 문화과로 기구가 축소된 것이다. 이와 함께 명칭도 *Institut Francais*로 개칭했다.

프랑스문화원의 이전은 두가지 점에 뜻을 두고 실행되었다. 하나는 도시의 중심부에 진입하여 새로운 일반대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기존의 프랑스문화원의 노후된 시설을 떠나 한국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프랑스문화원은 예술분야에 비해 저조한

굳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한국 속의 해외문화의 섬, 바로 주한 외국문화원이다. 각국 대사관들이 설치한 문화원은 바로 국내에서 해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국의 문화원을 둔 나라는 모두 7개국,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전략으로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활동을 보여주었던 타분야의 전문인, 대학인, 과학기술인, 프랑스에서 이미 학업을 이수한 프랑스 동문 및 일반 대중들과의 교류 모임 등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프랑스 활동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프랑스문화원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 살아있는 생생한 현지 프랑스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를 전문화하고 인터넷 시설을 확충했으며, 기존의 서적과 시청각 기재들을 80% 이상 새롭게 교체하여 미디어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화와 고급화에 노력했다. 미디어도서관 · 정보센터는 서적, 신문, 잡지, VHS, DVD 비디오 영화, CD 음반, CD-Rom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신착자료의 선정에 있어서도 학술적인 자료보다는 대중성이 짙은 일반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인 학생들의 프랑스 유학을 돕기 위해 프랑스 고등교육진흥원인 에뛰프랑스 *Edufrance* 서울 사무소를 프랑스문화원 내에 배치하여 전문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유학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문화원의 가장 큰 특징은, 동우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불어회화 동우회 모임, 어린이 동화읽기 모임, 영화 애호가들의 모임 등 각종 동우회가 프랑스문화원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애호가의 모임은 1990년대 ' 프랑스문화원파 ' 라는 한국 영화계의 신세대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번 새로운 프랑스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동호회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새 문화원 내에 50여석 규모의 다용도 행사실은 이러한 동우회를 위한 공간으로, 기존 동우회 외에도 각종 세미나 및 작가와 전문가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사간동 시절의 고급스러운 프랑스 문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프랑스문화원에 아쉬움을 표한다. 그러나 그 동안 예술 활동에 치중해 있던 문화원 사업을 과학기술 · 학술 · 대중문화 등 문화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힘으로써, 한국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새로운 문화원으로 거듭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독일문화원

(http://www.goethe.de/os/seo/koindex.htm)



지난 해 6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문화정책과 시민사회’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한 독일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 바르톨트 C. 비테 독일 문화기관장협의회 의장은 ‘문화를 통해 세상의 친구 얻기’라는 발표를 통해, “강대국이 되어서도 다른 나라의 호감을 잃지 않으려면, 자유와 신뢰에 입각한 문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이,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활발한 해외 문화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문화정책은 독특하다. 정부와 의회가 모든 것을 다루지 않고, 해외 문화정책의 실행을 그들이 세워놓은 일반적 목표 범위 안에서 독일문화원 같은 독립적 중계기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비테는, “믿을 만한 해외문화정책은 정부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이 아니라 자국의 현실 자체를 다른 국가에 보여주고, 문화가 비판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문화원의 정식 명칭은 괴테 - 인스티투트 인터 나치오네스 *Goethe - nstitut Inter Nationes e.V*로, 1950년대 독일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일어와 독일의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 76개국, 128개의 독일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독일어 보급과 지원 및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도모하며, 독일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 독일문화원은 1968년 서울에 설립되었다. 남산 언덕 위에 위치한 독일문화원은, 얼핏 보면 작은 단층 건물로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지상과 지하 3층의 규모를 자랑한다. 문화원 내부는 도서관, 강당, 세미나실, 사무실 및 7개의 강의실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독일문화원의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8천여권의 독일관련 도서와 48종의 잡지 · 신문, 1천여개의 비디오테이프와 음반 등이 비치돼 있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지하에 마련된 강의실에서는 독일어 강좌가 실시되는데, 강의는 회화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험을 통해서 독일어 어학능력을 입증하는 어학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일문화원의 중심적인 행사는 학문과 예술에 관련된 문화행사들이라 할 수 있다. 문화원은 한국 파트너와 함께 음악 미술 문학 춤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문화행사를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행사는 문화원 건물 내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개최된다.

예술 행사는 해당 분야의 역사적 · 사회적 근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행사와 동양과 서양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와 관련된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분야별 행사를 살펴보면, 우선 음악 분야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작품의 새로운 해석 및 한국과 독일의 신인음악가들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극분야에서는 한국 극단들의 독일 작품 공연과 독일 원어 연극을 지원하며, 독일의 무대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둔다. 학술분야는 한 · 독 양국의 사회 · 정치적 현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도 테마별로 선정된 영화의 정기적인 상영, 박물관 미술관 화랑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록물 전시회 및 미술 전시회, 독일 정

완전 개방화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고,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일본 문화의 편린들이 왜곡된 형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음란 만화나 영화, 폭력적인 전자오락 등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면서, 기형적으로 소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부 장학금 수혜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 독일문화원은 독일 문화의 한국 전파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독일문화원이 타 해외문화원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점은 양국 문화교류의 진정한 교두보 역할이며, 독일 문화가 다른 유럽 문화에 비해 국내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독일문화원의 이러한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 일본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데는 두려울 것이 없다 "고 천명함으로써, 일본문화 개방을 기정 사실화시켰다. 이로써 오랫동안 빗장이 잠겨있던 일본 문화의 한국 착륙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 월드컵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한일 간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 개방화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고,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일본 문화의 편린들이 왜곡된 형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음란 만화나 영화, 폭력적인 전자오락 등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면서, 기형적으로 소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일본문화를 꾸준히 보급해온 곳이 바로 일본대사관의 공보문화원이다. 일본문화원으로 더 널리 알려진 공보문화원은 1971년 7월 30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관실로 탄생했으며, 그동안 이전과 몇 차례의 확장을 거치면서 현재의 규모에 이르렀다.

1999년 3월에는 전면적인 개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5월에는 지하 1층에 일본 음악정보센터를 새롭게 열어 운영하고 있다.

약 2만2천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실은 개가식으로 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관외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도서실 한쪽에는 유학상담 코너를 설치하여 일본 유학에 관한 각종

자료를 비치하였으며, 도서실 개관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유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디오 비주얼 룸은 인터넷 및 비디오 시설을 통해 일본사회, 문화의 현재를 영상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전시실인 실크 갤러리는 공보문화원 주최의 전시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 한일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고 있다. 3층의 강당, 뉴센추리홀에서는 16㎜필름 영사기, 하이파이 비디오 디스크, 반향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필름 상영 및 강연회, 심포지움, 일본의 전통예능 등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며, 뛰어난 민간 교류사업에 대해 시설을 대여하기도 한다. 작년에 새로 선보인 일본 음악정보센터는, J-Pop을 중심으로 CD, DVD, 뮤직비디오는 물론 잡지를 통해 일본의 최신 음악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국제교육원에서는 외국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고 일본과 각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JE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87년에 처음 시작된 일본어 자격 시험인 JET는 한국은 물론이고, 1999년 현재까지 세계 37개국 6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어학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본문화원은 최근의 일본 정보를 담은 정기간행물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데, 월간『일본의 새소식』과 계간지『일본 포럼』은 일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공보문화원 사업은 크게 문화교류 사업과 인적교류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청소년교류 사업을 들 수 있다. 일·한문화교류기금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한·일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일본 총무청이 실시하는 한국·일본 청년친선교류 사업 및 아시아·태평양 청년 초빙사업, 그리고 한·일학생포럼, 한·일학생회의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세계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인식한 데 기인한 새로운 문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일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본문화원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일본문화원은 타 문화원과 달리 중·고등학생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용자층을 갖고 있다.